■ 월드컵 소식

G조 평가전 성적표

스위스 '우수' 토고 '보통' 프랑스 '부진'

'스위스는 우수, 토고는 그럭저럭, 프랑스는 별로...' 한국의 독일월드컵축구 G조 상대국인 토고와 프랑스, 스위스가 최종 엔트리 발표 이후 3~4차례씩의 평가전을 마무리했다.

▲스위스= 한국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 스위스는 상대국을 겨냥해 가장 제대로 된 스파링 파트너를 만난 것으로 분석된다.

스위스는 지난달 28일(이하 한국시간) '아프리카의 강호'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을 시작으로 지난 1일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 4일 '만리장성' 중국과 차례로 맞붙었다. 결과를 보면 코트디부아르와 이탈리아와는 1-1 무승부를 기록했고 중국에는 4-1 대승을 거뒀다. 1승2무의 그다지 신통치 않은 성적. 하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점점 팀 조직력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평가다.

▲토고= 전력이 베일에 싸여있던 토고는 네 차례 평가전에서 4전 전승의 화려한 성적표를 거머쥐었으나 이 가운데 한 차례만 A매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독일 현지 아마추어급 클럽팀과 대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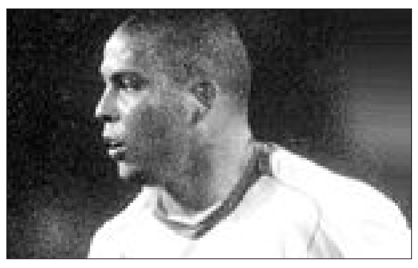
토고는 지난달 24일 독일 바이에른주 선발팀에 3-2 한 점 차의 힘든 승리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29일 FV 올림피아 라우프하임에 2-0 승, 지난 3일 리히텐슈타인과 A매치에서 1-0 승, 7일 FC방겐과 경기에서 4-0 승리까지 한 차례도 비기거나 패하지 않았다. 상대 전력이 강하지 않아 토고의 평가전 성적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전체적인 조직력이 가다듬어졌다.

▲프랑스-최종 엔트리 발표 때부터 팀 내에서 주전 자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프랑스는 과거 '레 블뢰'가 보여줬던 파워와 예리함 등은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다.

프랑스는 세 차례 평가전을 모두 이겼다. 하지만 '중원 사령관'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 등 노장 선수들이 예전의 기량을 선보이지 못한 데다 후반 들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득점왕 경쟁

〈호나우지뉴〉


〈호나우두〉

10일(한국시간) 개막된 '지구촌 잔치' 2006 독일 월드컵은 우승팀이 어느 나라가 되느냐에 못지 않게 득점왕의 향방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호나우두(브라질)가 8골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다.

당시 호나우두는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이후 무려 24년 간 아무도 넘지 못했던 '마의 6골' 벽을 깨트리며 우승컵과 득점왕에게 주어지는 골든슈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냈었다.

이번 대회에서 유력한 득점왕에는 역시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 등 '우승후보 0순위'인 브라질 선수들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미국 NBC 방송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 중인 '이번 대회 득점왕'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8일 오후 3시 현재 호나우지뉴가 전체 응답자 1천68명 중 1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있는 것을 비롯해 호나우두 15%(2위), 아드리아누 8.1%(4위) 등 '브라질 파'가 득세하고 있다.

특히 호나우두는 이번 대회에서 3골 이상을 넣을 경우 역대 월드컵 득점 부문 1위에 오르게 된다.

루니 본선 뛸듯

지난 4월 오른 다리 골절상을 입어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했던 '악동'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본선부터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8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공식 웹사이트를 인용, 루니가 정밀 검사 결과 조별 예선 이후부터 뛸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루니는 이날 영국 맨체스터의 병원에서 잉글랜드 축구협회(FA)와 맨체스터 팀 관계자의 입회하에 2시간여 걸쳐 정밀 진단을 받았다.

앞서 BBC도 이날 루니가 최종 정밀 진단에서 부상 부위가 월드컵에 나서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됐다는 답변을 들은 뒤 잉글랜드 대표팀 베이스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다시 독일행 비행기를 탔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동성·진흥·광주일고 우승 넘본다

무등기야구 전력 분석

〈상〉 호남·충청·영남권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무등기 전국고교 야구대회는 전국에서 지역별 예선을 거쳐 본선행 티켓을 차지한 25개팀이 참여한다. 권역별로 호남·충청권 9개팀, 영남권 5개팀, 서울 5개팀, 경기·인천·강원권 6개팀이다.

12일 무등경기장에서 개막해 8일동안 녹색 그라운드를 누빌 각 팀들의 속내를 상·하로 나눠 들여다봤다.

▲호남·충청권(9팀)

올해 청룡기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무른 진흥고는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최고 시속 150km대의 강속구를 뿌려대는 고교 특급 정영일(3년)이 버티고 있는 마운드는 전국 최강이다.

'야구 명문' 광주일고도 채선관(3년)과 김훈석(3년)등이 선배 나승현이 빠져나간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김강 등이 포진한 중심타선도 우승을 넘볼만한 파괴력을 지녔다.

무등기를 3차례나 우승한 동성고는 양현종(3년)을 앞세워 통산 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무등기 우승팀인 천안북일고와의 첫날 대결이 고비다.

북일고는 투수력이 강점으로 고교 정상급 우완 장필준과 좌완 김경택, 낙차 큰 커브가 일품인 우완 장효훈과 좌완 윤기호로 이어지는 '우-좌-우-좌' 의 짜임새 있는 마운드가 돋보인다. 하지만 투수력에 비해 타력이 약하다는 게 흠이다.

올해 창단 4년만에 대통령기 4강에 오른 화순고도 '다크호스' 다.

'명장' 이동석 감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팀 분위기가 다소 위축된 게 아쉽다.

▲영남권(5팀)

마산고는 3학년이 세 명뿐이다. 20명의 엔트리 중 11명이 1학년이다.

올해 성적보다 1~2년 후를 내다보는 팀이지만 저학년이 이끄는 타선은 위력적이다.

구미전자고는 눈에 띄는 전력은 아니지만 우완 추승민과 언더핸드스로 투수인 임현민의 활약 여하에 따라 예상외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

대구고는 김동명, 정대욱, 윤종현 등으로 구성된 짜임새 있는 내·외야진이 강점이다. 부전승으로 16강에 진출해 경기고와 맞붙는다.

'야구 명가' 경남상고의 혈통을 이어받은 부경고는 강동녘, 김사현, 박태정, 이성훈 등이 지키고 있는 마운드가 든든하다.

창단 8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공고는 짜임새 있는 내야 수비와 이영일, 윤지웅 등으로 구성된 마운드를 발판으로 4강 진입을 꿈꾸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젠 LPGA 정상 도전"

위성미가 8일 열린 LPGA 맥도널드챔피언십 연습라운드 15번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진흥고 "아깝다"

연장 16회 혈투 끝 1대2 패

경남고, 청룡기야구 우승

진흥고가 제6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연장 16회까지 가는 혈투끝에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렀다.

진흥고는 지난 7일 동대문구장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전에서 경남고에 1-2로 분패했다.

진흥고 선발 정영일은 16회까지 무려 222개의 공을 던지며 10피안타, 12탈삼진을 기록했고 경남고 이상화는 13.1이닝을 던져 안타 5개와 삼진 8개를 솎아냈다.

진흥고는 정영일이 0-0으로 맞선 2회 1사 후에 이상화로부터 중월 솔로홈런을 뽑아 선취 득점하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4회말 수비에 나선 진흥고는 2사 3루에서 원바운드 폭투로 1점을 헌납하며 뼈아픈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됐고 16회말 집중력 싸움에서 승부는 갈렸다.

진흥고는 16회말 실책으로 경남의 첫 타자를 내보냈고, 다음 타자의 보내기 번트 때도 실책이 나와 무사 1·2루 위기를 자초했다.

진흥고는 이어나온 이재곤을 고의 볼넷으로 내보내며 만루 작전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경남고의 다음타자 신본기는 정영일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중전안타를 때려냈고 4시간 6분의 긴 혈투도 막을 내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 중계

9일(금)

▲메이저리그〈보스턴-뉴욕Y〉(07 : 55·Xports), 〈피츠버그-샌프란시스코〉(11 : 05·Xports)

▲NBA 파이널 1차전(10 : 00·MBC ESPN)

▲독일월드컵 축구 평가전〈네덜란드-호주〉(14 : 00·MBC)

▲프로야구〈한화-KIA〉(18 : 00·KBS SKY SPORTS), 〈삼성-현대〉(18 : 30·MBC ESPN)

▲일본 프로야구〈롯데-요미우리〉(18 : 05·SBS스포츠)

10일(토)

▲독일월드컵 개막전〈독일-코스타리카〉(00 : 00·KBC/00 : 30·KBS2·MBC), 〈폴란드-에콰도르〉(03 : 40·KBS2/03 : 50·MBC·KBC)

▲PGA투어 바클레이스 클래식 2R(05 : 00·SBS스포츠)